

현안과 과제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 IT는 적자, 자동차 및 한류서비스는 흑자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 도입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관련 통계의 미흡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이 부족했다. 지재권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고 만성적인 적자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편된 지식재산권 무역통계(2010~2014년)를 이용하여 지재권유형/기관형태별/산업별 등 측면에서 특징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와 특징

신규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재권 무역적자가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고착화 되어 있다. 2010~2014년 사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62억 달러 적자로 감소하였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특허, 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무역적자가 심각하다. 2010~2014년 사이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에서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3.0%에서 78.9%로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양질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적자가 증가 추세이다. 2010~2014년사이 외투기업의 무역수지는 23.3억 달러 적자(22.5%)에서 28.6억 달러 적자(46.4%)로 증가했다. 특히, 35가지 세부산업 가운데서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분야에서 적자거나 보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로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연구개발 등 지식재산 개발 활동을 하기보다는 단순 시장진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최대 무역적자 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의 7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적자 대부분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기계부품 설계도와 같은 도형저작물 등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효자산업은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이다. 2014년 기준 자동차와 출판·영상·방송통신의 무역수지는 각각 8.0억 달러, 4.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산자동차의 해외생산량 증가, 한류 콘텐츠 수출 본격화의 영향으로 관련 특허권, 상표권, 콘텐츠저작권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시사점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국가 탈피를 위해 지재권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T, 전기, 전자 등 전통산업 기술을 활용한 파생기술 개발 등 전통기술 선진화 전략을 통해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한류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은 물론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 특허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효과적으로 매칭해주는 기술 중개 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1. 도입

- 만성적인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적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으나, 그 동안 관련 통계의 미흡으로 연구가 다소 부족
 - 우리나라는 전문기술, 과학기반형 산업구조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임
 -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갖고 있음은 물론, 자산적 가치도 막대하여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으로서의 중요성이 큼
 - 한국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계/SW 등 전문기술형 산업구조를 거쳐 최근에는 전자/정밀화학 등 과학기반형 구조로 전환
 - 그러나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가로 고착
 - 지재권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고 만성적인 적자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
 - R&D 기반 지식강국,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및 자원 확보가 시급
 -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역량은 OECD 국가들 중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
 - 지식재산권 무역은 기업의 산업 활동 및 경영 전략 등과 관련이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까지 지재권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이 부족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을 분석하여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새로 개편하여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 통계(2010~2014년)를 이용하여 분석
 -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 지재권 유형/기관형태별/산업별 등에서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

2.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와 특징

1) 개편된 지재권 무역통계

- 최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무역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재권 무역수지 통계를 편제하여 발표
 - 기존 한국은행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하는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통계는 지재권의 정확한 규모 및 객관적인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움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한국은행)는 지식재산권의 사용거래(매매거래 불포함)만 반영
 - 기술무역수지(미래창조과학부)는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등 기술서비스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신규로 개발
 - 신규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기존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보다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무역현황을 보여줌
 -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

<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개념 비교 >

구 분		기 존 통 계		신 규 통 계
		지재권 사용료 수지 (한국은행)	기술무역수지 (미래창조과학부)	지재권 무역수지 (한국은행)
특허 및 실용신안권	사용료	○	○	○
	판매·구매액	X	○	○
디자인권	사용료	○	○	○
	판매·구매액	X	○	○
상표권	사용료	○	△	○
	판매·구매액	X	△	○
저작권	사용료	○	X	○
	판매·구매액	X	X	○

자료 : 한국은행.

주 : △ 제조방법 등 기술지식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표의 거래 및 라이선싱만 기술무역수지에 반영.

- 한국은행은 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분류체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편제
 - (산업) 거래주체의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35개 소분류
 - (유형)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하고, 여타의 항목을 기타 지식재산권을 별도 구분하는 등 10개 소분류로 구분
 - (기관형태) 기업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대별하고 기업부문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며 그 안에서 외투기업을 별도 구분하는 등 5개 소분류로 구분
 - (국가) 거래비중이 높은 상위 24개국 및 기타 국가 등 25개국으로 분류
 - (기간) 2010~2014년까지의 분기/연간 시계열

< 新 지식재산권 무역통계 분류 체계 >

구 분	분 류 내 용
수지 (3)	· 수지, · 수출, · 수입
산 업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복 신발, 목재 펄프 종이, 인쇄 및 기록매체, 코크스, 연탄, 화학제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기타기계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 · 전기, 가스, 수도 · 환경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산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 예술스포츠, 협회 및 단체, 국제 및 외국기관 · 기타
유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 :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 저작권 : 음악·영상 저작권, 어문·연극 등 저작권, 연구개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 기타지식재산권
기관형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국내대기업, 외국인 투자 대기업, 국내중소·중견기업, 외국인투자중소·중견 · 비영리법인 및 기타
국 가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 기 타 : 아일랜드, 프랑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덴마크, 스위스, 인도, 스페인,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호주, 대만, 태국, 베트남, 브라질,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기타국가

자료 : 한국은행.

주 : ()는 항목수.

2)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

①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자폭이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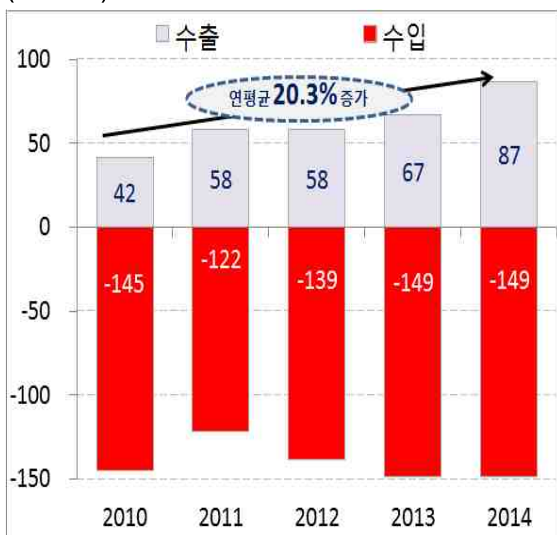
- 최근 지식재산권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 추세

- 2010~2014년 사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42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연평균 20.3%씩 증가
- 동기간 수입액은 145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소폭 증가

- 수출액 급증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에 따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 62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감소
- 무역수지비도 동기간 0.29에서 0.58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국면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임.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
(백 배)



자료 : 한국은행.
주 : 무역수지비는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으로, 1이상일 경우 무역수지흑자를 의미함.

② 특허, 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무역적자 심각

○ 특허 및 실용신안권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났으며 저작권은 적자폭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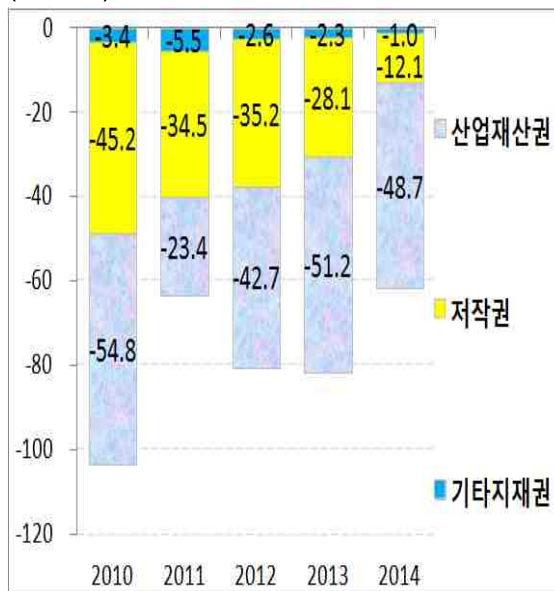
- 산업재산권의 적자규모는 작아지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0~2014년 사이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54.8억 달러 적자에서 48.7억 달러 적자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규모를 보임
- 동기간 저작권 무역수지는 45.2억 달러 적자에서 12.1억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

- 특히, 산업재산권 부문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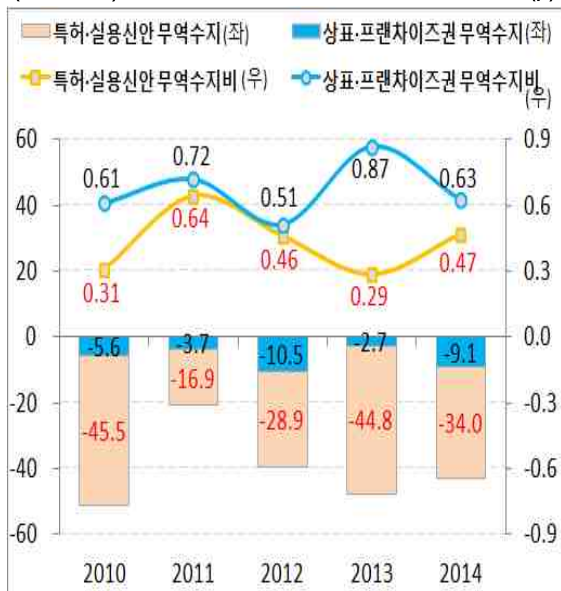
- 산업재산권 가운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비도 그렇다할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지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규모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 주요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 규모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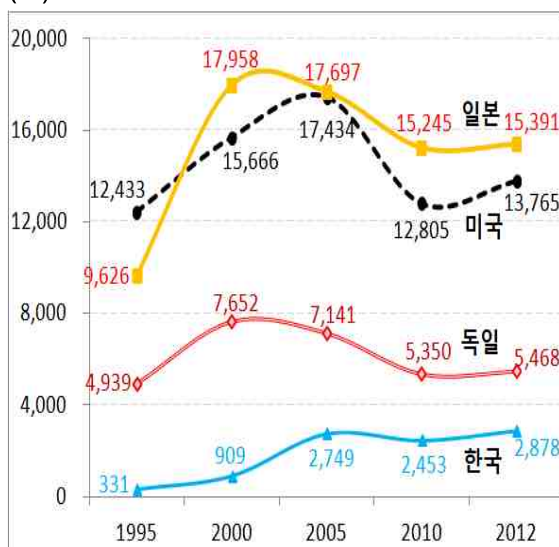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상표·프랜차이즈권은 또 상표권과 프랜차이즈권으로 세부 분류됨.

- 이는 우리나라의 양질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이 많기 때문임
- 우리나라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¹⁾의 규모는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
 - 삼극특허는 해당 국가의 특허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임
 - 1995~2012년 사이 우리나라 삼극특허 건수는 331건에서 2,878건으로 약 8.7배 증가
 -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삼극특허의 절대적 규모는 일본과 미국의 18%, 21% 수준에 그침
- 또한, 외국계 브랜드가 대거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상표권 수입(지급액)과 수출 사이의 격차가 다시 확대
 - 우리나라가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지급액은 2014년 1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우리 브랜드의 해외수출액은 6.2억 달러에 그침
 -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외국계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작음을 알 수 있음

< 주요국가의 삼극특허 건수 >
(건)



자료 : OECD.

< 우리나라 상표권 수출 및 수입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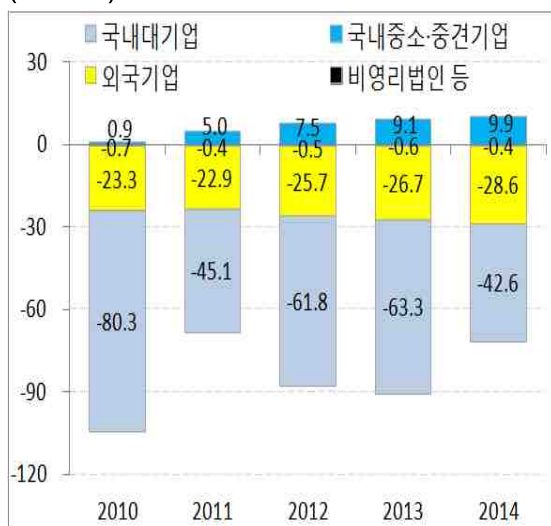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1) 삼극특허란,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돼 있는 특허를 의미함.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자 증가 추세

- 국내 대기업과 외투기업의 지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적자 발생
 -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자규모는 증가 추세
 - 국내 대기업의 지재산권 무역수지 여전히 전체 지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2010년 80.3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 42.6억 달러 적자로 감소
 - 반면, 동기간 외투기업의 무역수지는 23.3억 달러 적자에서 28.6억 달러 적자로 증가
 - 특히, 외투기업의 경우 35가지 산업분야 가운데서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34개에서 적자
 - 2014년 기준으로 외투기업은 제조업 분야 중 인쇄 및 기록매체 부분에서 430만 달러 흑자를 기록, 기타 34개 분야에서는 적자
 - 특히, 단일 산업기준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7억 6,500만 달러 적자), 도소매업(6억 7,000만 달러 적자)의 적자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기관형태별 지재산권 무역수지 규모 > < 2014년 외투기업의 산업별 지재산권 무역수지 >
(억 달러)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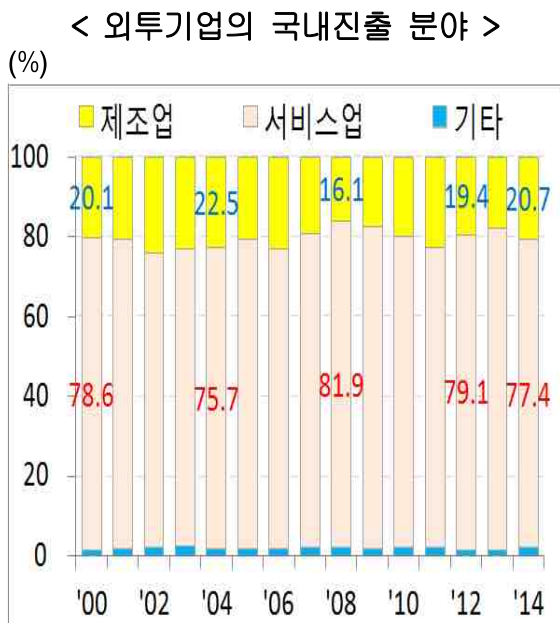
주 : 외국기업은 외투 대기업, 외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함.

구분	외투기업	
합	-28.61	
제조업	인쇄·기록매체	0.04
	비금속광물제품	-3.16
	자동차·트레일러	-2.19
	음식료품·담배	-1.79
	기타제조업 (11)	-5.82
서비스업	도소매업	-6.70
	출판·영상·방송·통신	-7.65
	기타 서비스업 (12)	-1.30
기타 산업 (6)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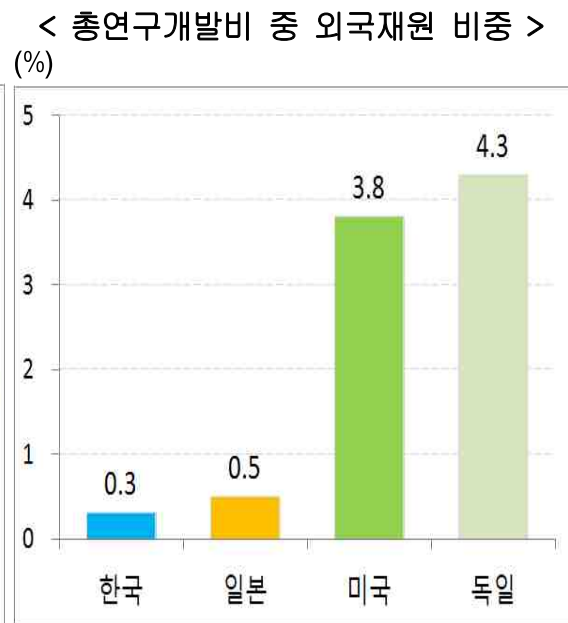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는 해당 분류에 포함된 산업의 개수.

- 이는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연구개발 등 지식재산 개발 활동을 하기 보다는 시장 진출 목적이 크기 때문임
-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대한 외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서비스업의 지적권 무역적자가 제조업보다 심각
 - 우리나라로 진출한 전체 외투기업 중 서비스업 비중이 2014년 기준 77.4%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대한 외투기업의 진출이 활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분야의 지적권 무역적자가 제조업보다 심각한 것은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서비스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외국본사에서 지적권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이 더욱 크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용 가운데서 외국재원(Financed by abroad)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타 선진국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총 R&D비용 대비 외국재원(Financed by abroad) 비중은 0.3%로, 미국, 독일, 일본 대비 외국기업 R&D센터 국내유치 실적이 심각히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외에 대한 지적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발생
 - 한편, WEF(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비교지표 중 지적권 보호제도 순위는 우리나라가 2013년 48위에서 2014년 68위로 추락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신고기업수 기준임.



자료 : OECD.
주 : 미국은 2012년 기준, 한국, 일본, 독일은 2013년 기준임.

④ 최대 무역적자 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우위 분야로 여겨졌던 IT관련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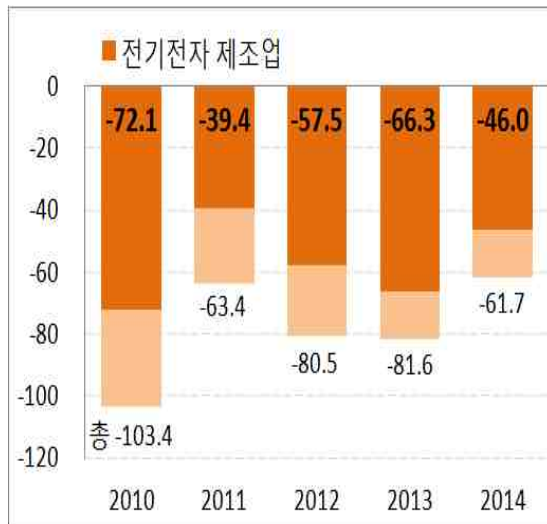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기전자 등 IT제품 제조업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0년 전체의 69.7%인 72.1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전체의 74.6%인 46억 달러 기록
- 해당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규모는 줄었으나 비중은 증가 추세

- 전기·전자 제조업의 무역적자는 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 발생

- 핸드폰, IT제품 등 전기전자 제품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상표권 분야에서 2014년 기준으로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반면, 원천핵심기술은 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32.6억 달러로 나타남
- 또한, 부품 설계도, 모형과 같은 도형저작물 등 문화예술저작권에 대한 무역적자도 17억 달러로 집계

< 전기·전자제품 지재권 무역수지 > < 2014년 전기·전자의 지재권유형별 무역수지 >
(억 달러)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구 분		무역수지
총		-46.0
산업 재산 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32.6
	디자인권	-0.9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9
저 작 권	문화예술저작권	-17.0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3.4
기타 지재권		-0.7

자료 : 한국은행.

○ 만성적 적자의 원인으로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이나 우선권 주장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우선권주장²⁾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작음

· 우선권주장 지재권은 세계시장에서 지재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수가 많을수록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가능

·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우선권주장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는 7,031건으로, 미국과 일본의 42%, 47% 수준에 그침

- 더욱이, 국내 등록된 전체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중에서 전기·전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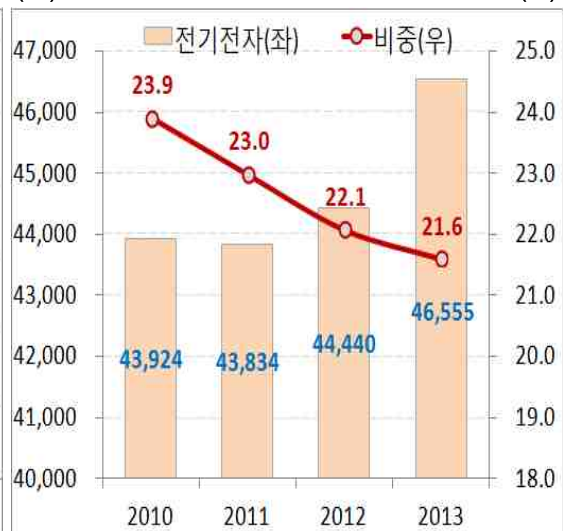
· 2010년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전자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전체 분야의 23.9%인 43,924건 기록

· 2013년에는 2010년보다 그 비중이 2.3%p 감소한 21.6%인 46,555건 기록

< 국가별 우선권주장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 < 전기·전자 분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
(건) (건) (%)



자료 : 특허청.



자료 : 특허청.

주 : 분류 기준은 국제특허분류(IPC) 기준이며, 전 기준지는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합산 기준임

2) 우선권주장 출원은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에 기한 후출원을 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함.

⑤ 효자산업은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

○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적자 개선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적자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2010년 자동차와 출판·영상·방송통신의 무역수지는 각각 0.3억 달러, 2.0억 달러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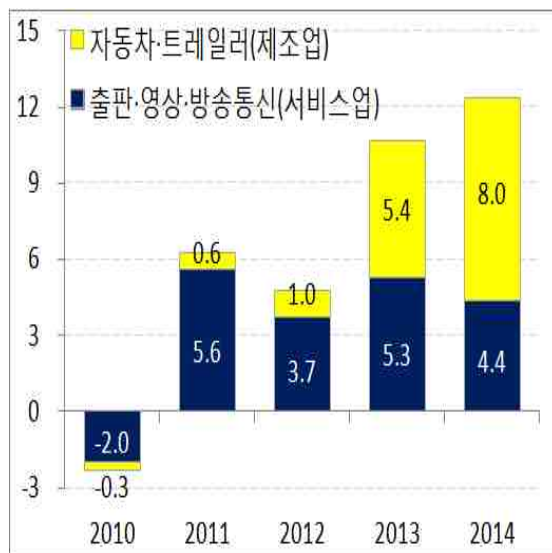
· 2014년에는 각각 8.0억 달러, 4.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두 흑자 산업은 2011년부터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비가 꾸준히 1을 상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무역흑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비가 2010년 0.9에서 2014년에는 3.0으로 급증

· 동기간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의 무역수지비도 0.8에서 1.1로 증가

<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 주요 흑자산업 > < 흑자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비 >
(억 달러) (배)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주 : 무역수지비는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으로, 1이상일 경우 무역수지 흑자를 의미함.

- 이는 국산자동차의 해외생산량 증가, 한류콘텐츠 수출 다양화의 영향으로 관련 특허권, 상표권, 콘텐츠저작권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국산자동차가 해외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관련된 특허, 브랜드상표권 등 수출 증대로 이어짐
 - 2010~2014년 사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내 총생산량은 427만 대에서 452만 대로 증가, 동기간 해외 총생산량은 260만 대에서 441만 대로 1.7배 급증
 - 해외생산량 급증이 자동차 관련 특허권, 디자인권 및 브랜드 로열티 등 지재권 수출을 견인
- 한류 확산이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도 증가
 - 1990년대 드라마를 필두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류 콘텐츠가 최근에는 게임, 예능, 음악 등으로 다양화
 - 특히, 게임·캐릭터 수출액은 2010년 18.8억 달러에서 2014년 31.6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게임개발 저작권, 캐릭터 상표권, 예능포맷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수입 확대에 이어짐

< 국산자동차의 국내외 생산량 >
(만 대)



자료 : 한국자동차연합회.

<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 추이 >
(억 달러)



자료 : 한국문화체육관광부.

3. 시사점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산업 후발국으로서 기술추격형 성장모델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
 - 산업 후발국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운용하면서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한계가 있음
 - 효자산업에서 발생하는 흑자규모가 아직은 미미하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상대적으로 부족
 -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지급 장기화되면서 국부유출 등 문제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증대

- 흑자 산업을 중심으로 지재권 개발·확보를 통한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국가 탈피를 위해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
 - 첫째, IT, 전기, 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기반을 활용하여 파생기술 개발 등 기술 선진화 전략을 통해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 필요
 - 우리나라 전통 주력산업 산업경쟁력 기반을 활용하여 기술무역 경쟁력을 높일 방안 모색
 -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선진국이 보유한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해서 파생기술을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수출 기반을 확립
 - 특히, IT, 생명공학, 인체공학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 분야에서의 특허 개발을 주도하는 노력 필요

 - 둘째, 한류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은 물론 한류콘텐츠 수출 확대 방안 마련도 필요
 - 글로벌 한류 문화 확산의 가속화에 따라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예능포맷 등의 개발과 수출 확대
 - 기술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류산업 이외의 분야로 확장하여 응용 기술 재산을 수출하는 노력도 강구
 - 향후 한·중FTA가 공식 발효되면 중국에 유통되던 불법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리·제재가 가능해지므로 한류콘텐츠 수출확대에 따른 관련 지재권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셋째,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한 협력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 정부 주도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원천특허 및 표준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공급자에게 배타적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허등록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개발된 기술이 표준특허, 삼극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 활동 등을 지원

- 넷째,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 특허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인프라 마련이 필요
 -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R&D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뿐 아니라 입지 선정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R&D인력 공급까지 전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
 -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국내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보호제도 정비도 필요

- 다섯째,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효과적으로 매칭해주는 기술 중개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 확립
 -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사이에 거래알선, 기술평가/협상 전문서비스 등의 중개활동을 제공하여 지재권의 이전을 촉진하는 기술 중개시장 구축이 필수
 - 기초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특성상 지니고 있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중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재권 이전 및 거래 관련 인프라를 확충

경제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천용찬 연구원
(010-7673-0703, 2072-6274, junius73@hri.co.kr)